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가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환상의 하모니 기대하세요”

12월 12일(주일) 저녁 6시,
LA 한길교회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단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의 제8회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잇 음악회가 오는 12월 12일(주일) 저녁 6시, LA 한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에서 열린다.

올해 크리스마스 연주회는 아프리카인 커뮤니티와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함께 준비하며 양 커뮤니티의 교류와 연합을 노래하게 된다.

게스트로 협연하는 바이텍스(BYTHAX) 앙상블은 아프리카인 커뮤니티의 가장 대표되는 연주 단체로 지휘자인 다이앤 화이트 클레튼 박사(Dr. Diane White-Clayton)는 현재 UCLA에서 종족음악을 가르치며 가스펠 콰이어를 지휘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음악가 중 한 명이다.

바이텍스 앙상블은 크리스마스 멜로디와 가스펠 송 등으로 아프리카인 특유의 흥겨움과 영혼의 깊은 울림을 뽐낼 예정이다. 라크마는 한국의 혼이 담겨 있는 우효원 작곡가의 “오 코리아” 를 오케스트라와 전통 타악기인 모듬북이 어우러져 웅장한 소리로 한민족의 깊은 숨결을 맡껏 표출하게 된다.

특히 피날레로 두 그룹이 함께 소리를 합하여 펼쳐질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아프리카인 소울과 우리 소리의 한이 융합되어 환희를 표현하면서 우정의 하모니로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주회 전담부는 올해 라크마 장학생으로 선정된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이뤄진다. 그동안 한인들만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범위를 확대해 한인뿐 아니라 아프리카인, 케네디안 출신 등 모두 4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음악 감독 윤임상 교수(월드미션대학교) “코비드 팬데믹



바이텍스(BYTHAX) 앙상블 다이앤 화이트 클레튼 박사와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 음악감독 윤임상 교수

로 마음껏 문화 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준비하게 되어 전세계 어디에서나 연주의 현장감을 맛 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소중함을 느끼는 계절에 우리의 이웃인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커뮤니티와 함께 음악 문화 교류를 통해,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연주회가 될 것”이라고 초대말을 전했다.

라크마는 “We are people helping people through music”이라는 사명 아래 2012년 창단되어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음악회의 수익금으로 후원하고 있는 음악 전문인들의 단체이다. 음악을 통해 다민족을 품는 취지를 갖고 그 동안 연주회를 펼쳐 왔으며, 특히 2019년 8월에는 디즈니 홀에서 유대 미국인(Jewish American) 음악인들과 “한국의 혼”을 협연하며 한국의 수준 높은 음악을 전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또한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 받아 올해부터 로스앤젤레스 아트 커미션(Los Angeles Arts Commission)으로부터 공식 후원을 받는 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도 거뒀다.

김동욱 기자

세계 인구 25%, 민주주의 후진국에 속해... 美, 사상 첫 불명예

미국이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가 선정하는 민주주의 후진국에 이름을 올렸다.

크리스천헤드라인은 최근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가 발표한 ‘글로벌 민주주의 국가’ 보고서에서 미국이 수 년째 ‘권위주의적 성향’에 굴복한 ‘후진적 민주주의 국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비상사태 선포, 허위 정보 확산, 독립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등 코로나19 이전 세계에 가져온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또 “현재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민주주의 후진국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발생률이 지난 10년에 비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라크 침공부터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미

국 대선 등 지난 20년간 민주주의의 강국들이 신뢰성을 잃어먹는 실책과 신뢰할 수 있는 대안적 통치 모델의 동시 출현을 더하면,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건강을 위한 마녀의 양조주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이를 더 진하게 독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 후진국의 목록에 속한 헝가리, 필리핀, 미국 등에서 “불균형, 불법, 불규정 또는 비상사태의 성격과 관련이 없는 조

치 등, 민주주의 위반에 해당하는 조치로 많은 민주적 속성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명백한 권위주의 정권이나 심지어 하이브리드 정권과 달리, 낙후된 민주주의는 처음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높은 수준의 선거 지원을 통해 얻은 의회의 다수당을 이용해 정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견제 등 민주주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해체



한다”며 “이 같은 민주주의 후퇴 과정은 종종 점진적이며, 후퇴가 시작된 후 민주주의가 붕괴되거나 이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평균 9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50만불 간접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213.251.5554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A, CA 90010 / Fax 213.251.8451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피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회 원 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뱅크럼시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뱅크럼시

뱅크럼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법 /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녀는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파지가 이루어지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다정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사는...

-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따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 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받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어느 때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공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법률 그룹의 밑거름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친분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발명가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전) Good Hands Organization 이사장

서사라 목사의 간증 수기, 신학적 조명 작업 활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간증 수기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서사라 목사에 대한 신학적 재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교계 유수의 신학자들도 서 목사의 책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다음은 서 목사의 책과 이를 추천하는 학자들의 글이다.

“서사라 목사의 간증, 성경의 계시 이해에 큰 도움” - 강영철 목사(서울동노회 노회장)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 간증 수기’는 신학 가운데 가장 기대하는 곳까지 성도를 인도해 주며 서사라 목사는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해 주는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다. 그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서울동노회 주님의 사랑교회 담임목사이며 교단의 신학을 존중하며 따르기로 고백하여 절차를 거쳐 가입했다. 서울동노회는 “서사라 목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정확 무오(無誤)한 말씀임을 믿는다. 서사라 목사는 유일하신 삼위일



포럼에 참석한 서사라 목사(오른쪽)과 권호덕 박사(왼쪽).

체 하나님을 믿는다. 서사라 목사가 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은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보여준 것으로, 성경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성경에 묘사되지 않는 천국 지옥에 대한 서사라 목사의 증거는 개인의 체험으로서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서사라 목사는 자신이 본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움 자료로 사용할 뿐이다. 서사라 목사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과 그의 성경해석에 관한 내용은 필요할 경우 공개적인 학술적인 논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라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서사라 목사의 삼위일체 이해에 대한 신학적 평가 - 권호덕 교수(전 백석대 조직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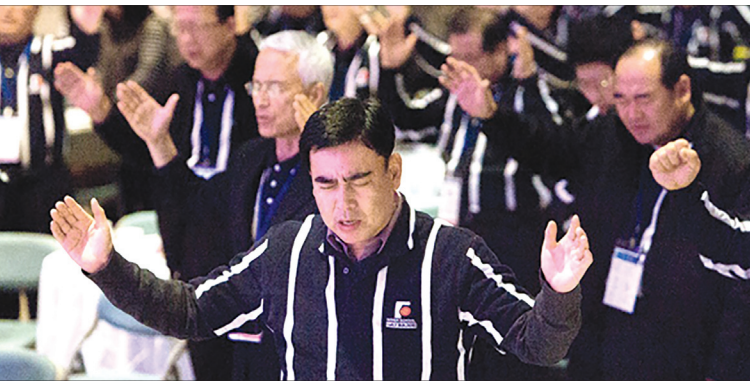
서사라 목사의 삼위일체 이해는 그녀의 성경 해석과 천국 체험에서 얻은 간증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은 ‘그녀가 천국 체험하고 증거하는 내용이 성경과 부합하는

가’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녀의 발언은 고대교회의 이단 중에 하나인 양태론에 가깝게 보일 정도로 세 분 위격 사이의 관계는 독특하다. 서 목사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독자적인 인격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분명히 양태론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은 권위있는 주석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서 목사의 간증 발언 가운데 기독교 신학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과 심각하게 충돌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4:5 내용이다. 매우 흥미롭게도 NICNT 주석 시리즈의 요한계시록 주석가인 Mounce와 WBS 주석 시리즈의 요한계시록 주석가인 Aune는 이 일곱 영을 일곱 천사로 해석한다. 그리고 Sacra sagina 주석 시리즈의 요한계시록 주석가인 Harrington도 이 일곱 영을 일곱 천사라고 해석한다. 이런 점에서 서목사는 매우 권위 있는 신학자들의 지지를 얻은 셈이다.

강해진 기자

두란노 미주 목회자 아버지 학교 LA(OC) 15기 개강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운동본부 15주년 기념 비전나잇

두란노! 내가 아버지입니다.

STRONG FATHER, STRONG FAMILY!

미주 목회자 아버지 학교 LA 15기

일 정 2021년 12월 6일 (월) 2 pm - 9 pm
12월 7일 (화) 9 am - 9 pm
12월 8일 (수) 9 am - 2 pm

제15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가 12월 6일(월)부터 8일(수)까지 LA 온누리교회 (담임 이정엽 목사 743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에서 열린다.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목회자 아버지 학교는 박세헌 목사, 서건오 목사, 이정엽 목사, 성요셉 목사가 강사로 나서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는 성요셉 목사는 “성경적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임을 깨닫고 가정의 연합과 하나됨을 배우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초대의를 말했다.

한편 목회자 아버지학교는 2003년에 1기가 개설되어(전세계에서 처음), 올해 14기를 개설하게 되었다. 18년 동안 412명의 목회자(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이 목회자 아버지학교를 수료했다.

문의: 준비위원장 성요셉 목사 (818) 331-2481

추운 가슴 따뜻하게 녹일 구세군 자선냄비 LA 한인타운에서 모금 시작

구세군 나성교회(이주철 사관)는 올해 한인타운에 자선냄비 모금을 시작하고 성탄절 이브인 24일까지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모은다.

지난 해에는 모두 5곳의 한인 타운 마켓에 설치됐던 구세군 자선냄비가 올해는 대포 줄어 한남체인과 김스전기 앞에서 6주간,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에서 주 3일간 모금활동을 펼친다.

자선냄비는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모금 활동으로 수익금 전액은 우리의 타운에 위치한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용된다.

구세군 나성교회는 “지난해 모금한 5만여 달러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전액 사용되어졌다”며 “사용처는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하여 의류, 음식, 비상식, 유제품, 렌트 보조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주철 사관은 “점점 메말라가는 지역 사회와 마켓들의 비협조에 마음이 아프다”며 “자



LA 한인타운 한남체인 앞에 설치된 구세군 자선냄비 봉사를 하는 이경석 장로

선냄비 모금은 어느 단체나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닌 전액 한인사회로 환원되는 만큼 교민분들의 봉사 참여와 모금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세군 자선냄비 성금은 우편으로도 동참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는 The Salvation Army(933 S. Hoover St. CA 90006) 앞으로 수표를 보내면 된다.

문의: 213-480-0714

OC 기독교교회협의회 정기총회

OC 기독교교회 협의회 31대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장 박상목 목사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Wedding Chapel)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총무 추석근 목사 (714)213-9627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2대 신임회장으로 김용준 목사 선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2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용준 목사가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기독일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8일, 한미장로교회(담임 김영모 목사)에서 제52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갖고 신임회장으로 김용준 목사(구제와사랑의 교회)를 선출했다.

김용준 목사는 “남가주 모든 교회가 개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함께 연합하고 서로 도와주며 사랑으로 배려하며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협의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교회를 섬기는 교협,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협, 시대 정신을 일깨우는 교협이 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다.

이취임식 축사는 이승우 LA 평통 회장과 윤성원 목사가 전했다. 박준형 목사(상임이사장)와 정완기 목사(제50대 회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취임식에 앞서 진행된 1부 예배는 최영봉 목사의 사회로 민종기 목사(남가주 교협 제41대 회장)가 “의인을 찾으시는 하

나님(창 18:22-26)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윤성원 목사가 축도했다.

민종기 목사는 “남가주 교협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 교회 공동체를 돌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길 바란다”며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성숙의 열매가 맺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오픈뱅크와 손잡고 위탁 아동 위한 성탄 선물 마련



위탁아동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함한 오픈뱅크 직원들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캐서린 엮)는 지난 11월 17일 오픈뱅크 직원들과 위탁아동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위탁 가정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날 오픈뱅크 직원들과 포장한 성탄선물은 오는 12월 4일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엮 소장은 “오픈뱅크는 저희 한인가정상담소가 2014년 처

음 시작한 동지찾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후원해주고 계시며 후원금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때 직원들과 임원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보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픈뱅크 크리스틴 오 전무(CFO)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한인가정상담소를 방문해 위탁 아이들에게 전달할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동지찾기 프로그램을 계속 후원하여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밀알 사랑의교실 봉사자 46명, 미국 대통령 자원 봉사상 수상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지난 13일,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교실에서 봉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원봉사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2021 밀알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자는 금상 8명, 은상 4명, 동상 32명, 킥그리게이셔널 어워드 2명 모두 46명이 수상했다.

예년에는 밀알 모든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시상식을 개최했지만, 올해는 Covid-19 방역을 위해 각 브랜드별로 행사가 진행됐다

사랑의교실(Class AGAPE)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



2021 밀알 자원봉사 시상식

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수업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전액 무

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종희 목사는 “사랑의교실은 2000년 8월5일, 남가주 OC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밀알선교단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핵심 사역

으로 자리 잡아 발달장애인들의 재활과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미주밀알선교단 산하 15개 지단, 2개 지소에서도 사랑교실을 통해 수많은 발달장애 참가자들과 교사, 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남가주 지역에서는 현재 OC, LA, 동부 LA, Irvine, Torrance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교실이, 산타페스프링크에 위치한 밀알 사무실에서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교실이 매주 진행되고 있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을 없애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영목사(세수신도원), 주성영목사(장신대 영예교수), 이종희목사(수리산교회), 송경원목사(복음선교대 공동대표), 권준희목사(중앙침례교회), 신정민목사(동일교회), 유관기목사(새생명침례교회), 김진희목사(KCC공동대표)

책의 목은 2개의 언어로 주류책일 수 있습니다.
\$20/원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굴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늘을 없애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록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원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책크라우드: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동역사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하나님의 은혜로 올림픽 장로교회를 설립하시어 지난 30년 동안 이끌어 오신 정장수 목사님의 은퇴 및 2대 담임 이수호 목사님의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올림픽 장로교회

2대 취임합니다

정장수 목사 · 이수호 목사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 | 담임목사 취임

2021년 12월12일 [주일] 오후4시

계속해서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올림픽 장로교회 성도 일동 -

1대 담임 정장수 목사 | 2대 담임 이수호 목사

올림픽 장로교회 |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 213-387-1700 | olympicch@gmail.com | 건물 뒷편의 지하주차장 이용해 주세요.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32

“GMI 그리고 김광신 목사님을 보며 세계 선교의 희망을 말하다”

필자에게 미국 이민 교회사에서 가장 존경받을 지도자를 꼽으라면 많은 분이 있겠지만 은혜한인교회의 원로 목사인 김광신목사님을 말한다.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필자는 그분과의 개인적 교제도 없었고 은혜한인교회의 교인도 아니다. 그분이 존경받을 점을 아무도 말하지 않던 때에 세계선교를 시작하셨다는 것.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전성도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심었다는 것.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은혜한인교회는 수천 개의 미주 한인 이민 교회들에 선교의 희망을 심어 주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과 세계 선교사들을 수백 명 배출하였고 세계 곳곳에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출신수범형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 등이다.

간단에서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는 열정적인 분이셨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가면 내내 그분의 말씀이 기억이 많이 남는다. 무언가 가슴에서 꿈틀거리는 기운이 있었다. 그분의 심장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교의 꿈을 심어 주는 비저너리(Visionary)였다. 그러다가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가 오셔서 뒤이어 더욱 선교적 교회로 발전시키는 모습에 참 기쁨이 컸다. 그분은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셨지만 세계 선교사로서 새 출발을 하셨다. 말 그대로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 끼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세계를 돌며 선교 동력을 일으키셨고 최근까지도 선교지를 다니며 열정을 불태우셨다.

한 30년 전쯤일까. 필자가 신학교에 입문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던 시절 세리토스의 한 서점에 들렀다가 진풍경을 보게 되었다. 십 수명의 성도들이 서점 안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바리바리 박스 등에 담으면서 대화를 했다. 주인에게 그분들에 관해 물었다. 은혜한인교회 교인들인데 다음 주에 러시아 선교를 하러 가기 위해 필요한 물품과 선물 등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한 교회 교인들이 가는데 비행기 한대를 빌려서 수백 명의 성도가 함께 간다고 했다. 그들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고, 들떠있었지만 에너지가 넘쳐있었다. 필자는 그들의 러시아 선교 보고를 들었다. 많은 결신자들이 나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장기 선교사들이 연속해서 배출됐다. 너무도 놀라웠고, 내게는 큰 도전이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일선에서 서서 교인 전체를 직접 선교에 참여시키는 선교적 교회로 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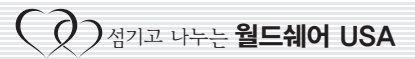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이 교회와 이 리더십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배출해 낸 가히 미주 전체 한인 교회 중에서도 좋은 귀감이 되는 교회로 성장한 이 교회에 큰 마음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던 2021 김넷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에 90세에 이르신 김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너무 뵈고 싶었던 분이기에 기뻐했다. 지난 40여 년 그분이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던 그때의 모습이 그려졌다. 성도들의 가슴에 세계 선교 비전의 불을 지폈던 지도자였다.

그 후에 필자는 은혜한인교회에서 하는 특별 집회에 몇 차례 가서 김광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김 목사님의 설교는 많이 비교 되었다. 논리적이기도 않고, 음성이 컸고,

지금 팬데믹으로 주춤해진 세계 선교를 향한 교회의 꿈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 계속하여 그분과 같은 선교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이 뉴노멀 시대를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신약성경의 배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70인경소개”

바울과 초대 교회가 주도한 1세기 기독교 선교는 대단한 기세로 확장됩니다.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세계로 번져나갑니다. 1세기 그리고 2세기 초반의 선교는 마른 장작에 불이 붙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선교현장을 보면 1세기 유대와 로마 제국 상황은 기독교 복음을 실어 나르는 도구였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먼저 로마시대 복음 확장에 중요한 통로는 로마의 도로망입니다. 로마는 고속도로 제국이었습니다. 정복지마다 로마와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모든 도시는 로마로 통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에서 로마의 도로망을 백분 활용합니다. 강도와 산적들이 우글거렸던 시대에 로마군인들이 통제하는 로마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둘째 로마시대 복음 확장에 중요한 수단은 세계화된 코이네 헬라어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구사해야 했습니다. 선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바울의 선교팀은 코이네 헬라어를 구사하는 헬라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셋째 로마시대 복음 확장에 중요한 통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살아 있는 신앙은 로마 주요 도시마다 회당을 세웠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 했습니다. 개종직전의 상태였던 경외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넷째 로마시대 복음 확장에 중요한 기초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셈투어전트, 70인경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은 온 세계에 확산 보급되어 읽혀집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약에 친숙하게 되어 구약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델푸스 주변에 유대인의 편에 섰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절친 이었던 아리스테아 그리고 왕실 도서관 담당관인 데메트리우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의 율법(구약성경)을 왕립 도서관에 소장하자고 제안하면서, 이 율법(구약)을 헬라어로 수집(번역)하자고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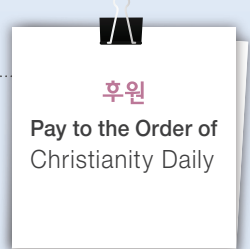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 톨레미 필라델푸스가 주도하여 율법 번역의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톨레미 필라델푸스왕은 이 번역 작업을 위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애굽에 잡혀와 있던 유대인 약110,000명을 돌려보내고, 그들이 속해 있었던 애굽 가정에는 그들의 몸값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 엘르아살(Eleazar)에게도 엄청난 양의 돈과 제물들을 친서와 함께 보내며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정확한 번역을 위해 대표를 선발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흥분합니다. 원로회의를 소집하여 긍정의 결론을 내리고 왕에게 응락의 답장을 톨레미 필라델푸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각 지파 대표 72명을 율법서와 함께 애굽으로 파견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구약)는 헬라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파를 대표하는 72명의 장로들은 파로스(Pharos) 섬에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유대 장로들(72명)의 율법 번역 작업은 72일 만에 끝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경우 율법은 모세오경만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번역된 70인경 혹은 70인역 헬라어 성경은 초대 교회기간에 반복적으로 인용되면서 점차 미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Overseas Vot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세계 속의 한국인 민주주의 꽃 피우다. Koreans around the World, Democracy Blossom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To vote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verseas absentees and voters are required to complete the registration in advance.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Overseas Absentee Report Period 2021. 10. 10. ~ 2022. 01. 08.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Registration for Overseas Voters ~2022. 01. 08. 까지 by January 08, 2022.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Register as an Overseas Absentee or an Overseas Voter. 투표기간 Voting Period February 23, 2022 - February 28, 2022 2022. 02. 23. ~ 02. 28.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4)

“한국의 요단강으로 불린 압록강에서 최초 집단 세례식 거행”

존 로스는 만주 봉천(요녕성 심양)에서 중국 선교 사역을 하며 동시에 조선 선교도 행하였다. 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1874년 10월 9일에 청나라와 조선의 완충지인 안동(단동) 외각에 있는 '고려문(高麗門)과 압록강과 애허강이 합류하는 곳까지 와서 강 건너의 조선 평안도의 의주 땅을 바라보고 돌아갔다. 그곳은 나룻터가 있었으며 오랜 동안 조선의 사신들과 붓집 장사들의 통행로였다. 그의 여행은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탐방이었다.

그는 2차에 걸쳐 고려문을 방문하면서 의주 출신이며 붓집 장사꾼들이 백흥준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서상륜과 서경조와 이응찬, 김진기를 만나 저들을 전도하여 제자로 삼았다. 존 로스는 심양 '동관문교회'에 '문광서원'을 만들어 조선 청년들과 함께 조선어 성경을 번역하여 조선인들에게 전해 주기 위한 사역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한문에 능통한 조선인 번역자가 필요하였다. 놀랍게도 이에 가장 적합한 번역자가 서상륜이었다. 그는 의주 출신의 몰락한 양반 가문의 한학자였으며 동생과 같이 생계를 위해 청나라를 드나들면서 흥상 장사를 하고 있던 중에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조선어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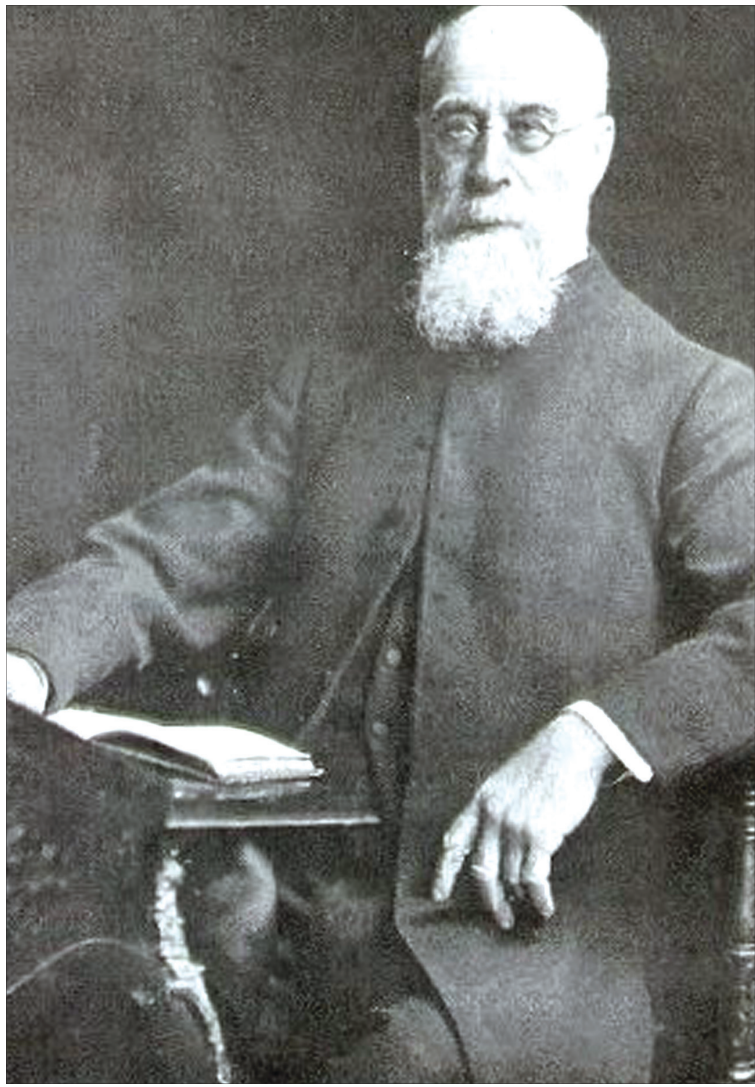
지난 1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성경은 한문 성경이었으나, 이제 존 로스 선교사와 조선인과 함께 조선어 성경을 번역하여 조선인들을 위한 성경을 만든다는 것은 조선 교회의 큰 획을 긋는 의미있는 일이며 토마스 선교사의 미완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 당시 조선에서 한문 성

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기에 한글 성경을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번역 사역이었다.

이처럼 존 로스 선교사가 조선 본토가 아닌 중국에서 조선어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하게 된 것은 조선에서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전도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중국에서 이런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계획이었다.

무엇보다도 중국어 성경(마쉬만, 라싸르 역)이 1820년 역과 1852년의 개정 한문 성경이 만들어졌으므로 조선어 성경 번역은 매우 수월하였다. 조선 언어의 어휘가 대부분 중국어였기에 성경 본문의 의미 전달이 수월하였다. 그러므로 한문에 능한 서상륜의 참여는 최적의 조합이었다. 존 로스 선교사는 헬라어와 자국어 영어를 한문 성경과 조선글과 대조할 수 있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가장 적합한 성경 번역문(Bible Text)이 될 수 있었다. 최초의 조선어 번역에는 평안도 방언을 표준하여 번역되었기에 이북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성경이 될 수 있었다.

이 당시 아시아에서의 성경 번역은 대부분 서구의 선교사들이 직접 그 나라 언어와 문자를 익힌 다음 그 수준에 의해 번역되었다.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이 그러했다. 그러나 조선어 성경은 오히려 모국어를 사용하는 조선인이 주축이 되어 자국어로 번역했다는 것은 그만큼 번역에 적합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당시에 존 로스와 조선인들에 의한 최초의 성경 번역은 1882년에 '누가 복음서'를 먼저 번역 출판하였기에 '족복음'이라 하였으며 1887년에는 신약성경인 '예수성경전서'를



한국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 ©Wikipedia

번역 출간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한글은 언문이라 경시하였기에 식자층과 양반들은 한문을 선호하였지만, 일반 백성들과 아녀자들은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한글을 선호하였기에 오히려 조선어 성경이 대중화하는 데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조선의 복음화와 문명 퇴치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선 자국민과 존 로스 선교사와의 공동 번역은 한국 교회사와 이북 지역의 복음화에 큰 공헌을 하였고 교회 성장에 큰 잠재력을 제공한 것이었다.

한글 성경을 조선인 손에 쥐어

준 존 로스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대동강에서 나누어 준 한문 성경에 이은 20년 만에 성취된 두 번째 성경이라 할 수 있으며 조선인들을 향한 구원의 완성도를 교회사적으로 진일보시킨 것이었다. 최종적으로는 이 조선어 성경이 압록강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전해지게 된다.

존 로스 선교사와 의주의 서상륜 등 5명이 최초의 조선어 성경인 누가복음서를 1882년에 출간하였다. 이 한글 성경의 출간이 조선이 아닌 중국 만주라는 이방 땅에서 만들어져서 조선으로 유입되어 배포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복

음 전파 사역에 북쪽 지방인 갈릴리의 어부, 세리, 목수 등의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택하여 제자를 삼으신 것 같이 존 로스는 국경 지대의 장마당(계절시장)과 만주를 넘나들면서 장사를 하는 이북의 붓집 장사꾼들을 택하여 제자를 삼고 그들과 함께 조선어 성경 번역을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천시하는 유교의 전통이 있었으나, 이들은 붓집 장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매서인(권서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조선의 속사도가 되었다.

당시 조선 내지에서는 복음 전파가 불가능하였고 성경이 금서였으므로 조선어 성경의 번역과 출간이 국경 너머의 타지에서 준비되어야 했는데, 존 로스에 의해 만주 심양 동관교회의 '문광서원'에서 마침내 신약전서가 1887년에 출간되었다. 이 성경의 본문은 사실상 한글 성경의 최초 원본(Original text)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 청년 5명과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와 함께 각고 끝에 조선어 성경을 번역 출판되었으나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성경을 어떻게 조선 땅에 전해야 하는 것이었다. (계속)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아이넥스 바디샵.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43-0301. Fax: (213)643-0302.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차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차리 정.

2021 마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GATEWAY SEMINAR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FULLER THEOLOGICAL SEMINARY.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조용기 목사 신앙 계승” 영산글로벌미션포럼 창립

故 조용기 목사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단법인 영산글로벌미션포럼'(이사장 이영훈 목사)이 창립했다.

포럼 측은 설립취지문에서 “영산 조용기 목사님은 63년 동안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과 오대양 육대주를 오가시며 희망의 복음을 전하셨다”며 “거대한 산(山)과 같은 영산(靈山)의 신앙과 영성이지만 그 출발점은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다.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은 복음의 중심이요, 핵이며, 순복음 신앙의 기반이고 출발이다. 십자가 신앙으로 출발한 순복음 7대 신앙과 삼중축복과 오중복음, 4차원의 영성으로 순복음을 이끌고 오셨다”고 했다. 이어 “조용기 목사님은 순복

음교회들 뿐만 아니라 소망과 꿈을 심어주어야 할 곳이 있다면 국내외 어느 곳이든 가서서 소망과 희망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며 “지구를 130바퀴 돌고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유럽, 남미대륙 등 안 가신 곳이 없다”고 했다.

또 “영산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성도들을 사랑하셨다. 목사님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소중한 꿈을 꿀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용기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고 계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사단법인 영산글



故 조용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로컬미션포럼'을 창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

계에 조용기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을 전하고 계승·발전해 나가겠다. 하나님께서 '사단법인

영산글로벌미션포럼'과 함께 하실 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주요사업은 △조용기 목사 목회철학의 이론적 체계화 지원 △국내외 석학 초청 포럼 지원 △교회성장 사례 연구 지원 등이다.

이사장을 맡게 된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는 “민음의 스승이신 영산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생전의 가르침과 사랑을 새기며 그 신앙과 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영산글로벌미션포럼을 설립하게 됐다”며 “한국교회의 큰 산, 세계교회의 위대한 복음전도자였던 영산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충만한 사역을 기억하고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코로나19로 1만 교회 사라져... ‘아니오’ 할 줄 아는 교회 돼야”



대표회장 심영식 장로(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한국기독교인연합회, 문 정부 규탄 성명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예배가 중단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로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위협을 받는 세대에 대해 한국기독교인연합회(대표회장 심영식 장로, 이하 한기연)가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국교회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기연은 26일 오후 5시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인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코로나시대 예배 회복’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예배에서는 상임회장 김형원 장로의 인도로, 대표회장 심영식 장로의 인사와 공동회장 안충수 장로의 기도 이어 ‘선하

고 의로운 요셉’을 주제로 한국교회연합 송태섭 대표회장이 말씀을 전했다.

송 대표회장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라는 이들이 필요하다”며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지 않으신다. 아닌 것에 아니오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에 대형교회와 대형교단은 많지만, 코로나19로 1만 교회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잘못된 것을 말하는 이들이 없다”며 “예수 죽이기를 모의할 때 모두들 눈 감고 있을 상황에서 아니라고 외쳤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신앙인이 되자”고 당부했다.

전국장로회 성가단 HIM중창단의 특송 후 대한민국의 대신과 남북통일을 위해 공동회장

권승달 장로, 코로나 시대 예배회복과 교회 정상화를 위해 부총재 김사철 장로, 한국교회 일치와 동화를 위해 공동회장 김상윤 장로가 특별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총재 김범열 장로가 격려사를 전하고 공동회장 김태현 장로의 성명서 낭독, 사무총장 이영한 장로의 광고와 송태섭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정치적 여론몰이, 무리한 차별금지법 추진 규탄

이들은 성명에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정치적 이용, 일부 교회 문제를 기회로 한국교회를 탄압하기 위해 성스러운 주일예배를 비대면 예배라는 극치의 방법으로 교회를 탄압해 왔다”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한국교회 전체를 탄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작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국민과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의 진원지로 한국교회를 지목하면서 비난과 박해를 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정부의 방역실패 때문인데도 교회를 부정적 여론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명백히 젠더이데올로기의 법제화, 젠더평등을 지향하는 젠더정책에 기반하여 발의된 법안”이라며 “교회는 책임의식을 갖고 21세기에 음란하고 패역한 성혁명에 맞서서 거룩하고 성결한 성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 패륜적 법안을 철회하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교회에는 비대면 예배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성도들의 주일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성실하고 경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 정부의 교회 공예배 방해와 탄압에 방관 말고, 흔들리는 교회, 방황하는 대중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하루 속히 국가와 교회가 직면한 시련이 끝나기를 간구했다. 송경호 기자

전광훈 목사 내년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재출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직무대행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던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가 내년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재출마한다.

사랑제일교회 측 대변인 이은재 목사는 16일 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기총 설립 정관에 따르면, 1988년 영락교회 창립자였던故 한경직 목사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산화로부터 지키기 위해 한기총을 설립했다고 나왔다”며 “이에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교회에 대한 탄압을 막기 위해 2022년 1월 즈음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이는 한기총 정관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전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직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 “정관에 따라서 1년 대표회장직을 지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지난해 한기총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26대 한기총 대표회장 선출이 무효화돼서, 현재로서는 내년(2022년)에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재출마가 가능하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기독교일보 제공

‘무료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검사’

기독교일보는 LA 한인타운 인근지역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 19 전파 고위험 지역에서는 백신접종 2회를 마친 주민도 실내 및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델타 변이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백신 접종 완료 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 자신의 신체에 코로나19에 대항할 항체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독교일보는 크리스티뷰 클리닉 연구소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보호와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근거리에서 위치한 교회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PCR검사 및 항체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코로나 19 PCR 검사 및 항체 무료 검사를 원하는 15명 이상의 교회는 예약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도 가능하다.

또한 해외나 한국 방문으로 코로나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는 2일~3일 뒤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과 COVID-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무료 검사 예약 (213)739-0403, (213)434-1170



NEW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뉴 프로지골드 출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연말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美 그레미상 수상자 토리 켈리 “신앙은 제 삶의 일부”

미국에서 그레미상을 수상한 CCM 아티스트인 토리 켈리(28)가 더빙한 영화가 곧 개봉될 예정이다. 켈리는 자신이 그린 그림책까지 소개하며 근황을 전했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그녀는 최근 크리스턴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누구든 나의 일부”라며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어떤 시점에 나타나신다는 느낌이 든다. 어릴 때부터 신앙은 제 삶의 일부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제게 매우 인격적인 것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10대 때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며 유명세를 타고 아메리칸아이돌 시즌9에 참가했던 켈리는 “신앙은 나의 일부이며, 강요할 것이 아니다. 그냥 나오는 것 같다”며 “특히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도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말씀을 통해 평상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다”고 했다.

켈리는 저스틴 비버와 애드 시런과 같은 주류 가수들을 비롯해 래리, 킹 앤 컨트리 등 크리스천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는 등, 오늘날 가장 성공적인 크로스오버 장르 아티스트들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지난 7월 비버, 카리 조브, 코디 카네스, 매버릭 시티 뮤직 등과 함께 대규모 콘퍼런스를 인도했으며, 지난 2018년 커크 프랭클린과 함께 CCM 앨범 ‘하이딩 플레이스’(Hiding Place)를 발매해 그레미상을 수상했다.

켈리는 뮤지컬 애니메이션 코미디 ‘싱’의 속편 ‘싱2게더’에서, ‘자신감을



토리 켈리. ©Lumilly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큰 목소리의 수줍은 코끼리’ 미나의 목소리를 맡았다. 이번 영화에는 리즈 위더스푼, 스킵렛 요한슨, 보노, 퍼렐 윌리엄스, 매튜 매커너히 등 재능있는 배우들이 출연하며, 오는 12월 22일 미 개봉 예정이다.

그녀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든지 그것은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며 “전 아이들의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랐고, 그 캐릭터들과 사랑에 빠졌던 것을 기억한다. 당시 그 영화들은 인식을 했는지 못했는지 정말 내게 정말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화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은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녀는 오는 1월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통합한 첫 번째 어린이 그림책 ‘켈리 걸 블루스’를 출판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무신론자에서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CS 루이스 다룬 영화 ‘흥행몰이’



C.S.루이스 작가

무신론자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기독교 작가로 회심한 C.S. 루이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루이스 전문가 노먼 스톤이 감독한 영화 ‘가장 반항적인 개종자(The Most Reluctant Convert)’는 이달 3일, 단 하루만 개봉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미국 전역의 200개 극장으로 확장됐다.

이 영화에서 루이스 역할을 맡은 배우 맥스 맥린은 ‘페이스 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완고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 변증가로 변신한 루이스의 신앙 여정에 대해 소개했다. 이 영화는 맥스 맥린이 루이스의 작품을 기반한 1인 연극을 각색했다.

영화 초반부에는 배우 니콜라스 랄프가 20대의 루이스를 연기하고 톰 글레니스타가 그의 친구이자 동료 작가인 JR 톨킨으로 출연한다.

맥린은 “루이스는 9살에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고, 아버지와 끈적한 관계를 유지했다. 또 그는 1차 세계 대전의 참호 속에서 학살을 경험했다”면서 “이후 그는 우주 뒤편에는 신이 없거나, 선과 악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더 사악한 신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이후 루이스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선언했고, 아내의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맥린은 루이스의 “역설적(paradox)인” 면모를 소개하며 “그는 영적, 감정적으로 사물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영성과 감성이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성으로 연결시킨다”고 말했다.

또 루이스의 작품이 그에게 “심오한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서 “내가 (신앙의) 궤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알서 스톤 감독은 영국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작가 루이스의 이야기를 큰 화면으로 가져오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믿고 있다”라며 “어떤 때 사회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1963년 사망한 루이스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작품은 모든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다. 나니아 연대기 팬 사이트에만 6백만 명의 팔로워가 있다”면서 루이스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다.

현재까지 이 영화는 2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이달 말까지 상영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리,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들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cg.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죽예배 매일 4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벤틀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부 5:30)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토)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예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반인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번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Rd.,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금요영성예배 아침말씀예배
오전 11:00 오후 7:00 월-토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유튜브 ‘미주 기독교일보 CDTV’ 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토크

신문 GO



영국, '이슬람 출신 기독교 개종자' 의 자살폭탄 테러?

지난 11월 14일 영국 리버풀 한 주차장에서 자살폭탄 테러범이 택시 안에서 폭사한 사건과 관련, 한국 사회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슬람발 테러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영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영령기념일'에 발생한 테러 시도였다. 영국은 매년 11월 11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 11시, 나라 전체가 묵념과 예배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범인은 32세의 시리아 출신 난민입국자 '이마드 알 스윌먼'으로, 그를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의 기지로 대규모 살상을 노린 테러는 무위로 돌아갔으며 택시 안에서 범인 혼자 사망했다. 택시기사 데이비드 페라리는 택시에 불이 붙기 전 간신히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고, 병원 치료 후 퇴원했다.

이전 사건들과 다른 점은 지난 2014년 영국에 입국한 후 2017년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알려졌다는 점이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기독교 개종 후 영국 내 체류 자격 취득에만 관심을 뒀다고 한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망명 자격을 얻기 위한 '가짜 개종'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범원 기록에 따르면, 스윌먼은 2015년 기독교로 개종을 시도했고, 엔조 알메니라는 새 이름을 선택했다. 그는 그 해 리버풀 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2017년 견진까지 받았으나, 2018년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이 교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때문에 스윌먼은 '기독교도'로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전형적인 무슬림 지하드 형태임에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영국 기독교법률가 단체 Christian Concern 등에서는 테러범이 기독교 개종 후라는 이유로 '기독교도가 저지른 테러'로 언론에 보도되는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범인이 시리아인 아버지와 이라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20대가 되도록 시리아에서 성장



©BBC 방송 캡처

해 전형적인 무슬림으로 자란 것을 지적하는 대신, 표면적인 기독교 개종 사실을 이유로 '기독교도에 의한 테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반박한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주는 교훈이 있다고 말한다. 김도훈 선교사(중동선교회)는 "Christian Concern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의 지적대로, 영국 언론사들조차 기독교에 대해 잘 알지 못

하고 보도하고 있다"며 "기독교로 개종해서 테러가 일어났다는 등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 나가는 보도로 인해 기독교가 엉뚱한 오해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교회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일반 사회의 인식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독교의 교리와 선한 영향력에 대해 가르치고 홍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회는 영국의 이번 사례를 깊이 이해하면서 교회를 깨우는 작업과 함께, 이슬람의 폭력적 속성과 그에 반하는 기독교의 사회 기여를 제대로 홍보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진전시킬 책무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올해의 박해자', 탈레반-김정은-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납치, 강제 개종, 성폭력 위험에 처해 있다. ©ACN 제공

국제기독교연대, 처음으로 선정해 발표

종교자유 수호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는 올해 첫 박해자 명단에 탈레반, 김정은, 나이지리아를 올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ICC는 15일 기독교 최악의 박해자 24명을 지목한 150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동시에 종교 박해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대화를 토대로 '올해의 박해자'를 선정했다.

ICC가 이 같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박해자를 선정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과거 ICC는 세계에서 종교적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위반한 인물들을 조명한 '수치의 전당'이라 불리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2003년부터 ICC 위원장을 맡고 있는 킵 목사는 "나이지리아를 2021년 최악의 종교자유 박해국가로 선정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기독교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독교인과 싸우는 게릴라 세력이나 과벌이 두 곳에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처한 불안정한 환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나이지리아에서 5만 명에서 7만 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곳은 기독교인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다. 나이지리아는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내고 목숨을 앗아간, 악명 높은 이슬람 테러단체 보코하람의 본거지"라고 했다.

킵 목사는 "말 그대로 수백만 명, 3백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추방됐다. 그들은 집, 땅, 농장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이지리아 정부

도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공격에 연루돼 있다"고 했다. 이어 나이지리아 카두나주기독교협회 회장인 조셉 존 하에브 목사의 동영상도 재생했다.

하에브 목사는 또 나이지리아 내 분쟁이 기독교인 농부들과 무슬림인 풀라니 목동들 사이에 발생한 긴장의 결과라는 주장을 일축하며, "이 범죄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ICC가 선정한 올해의 박해자 단체는 탈레반이다. 보고서는 "탈레반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기독교인들을 수색하고 '우리가 당신을 잡으러 간다'고 협박하는 전화를 걸기도 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킵 목사는 "탈레반은 기독교인들을 고문할 때 은밀한 작전을 펼친다. 그들은 공개적인 살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협상에 나설 것이고, 정치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일을 뒤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ICC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을 올해의 박해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김정은 부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델로 한 종교 체제를 만들었다. 김정은과 체제에 대한 어떤 위협도 무자비하게 파쇄된다"고 했다.

킵 목사는 과거 독재자였던 김일성, 김정일의 뒤를 이은 김정은을 "북한 기독교 박해의 최고 주동자"라며 "(누군가 북한에서) 진지한 기독교인으로 확인되면, 그를 비롯해 3대를 추방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기독교인 약 3만 명이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100만 명이 이상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자 김성민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기독교가 국가의 적이라는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있다. 김씨 정권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상류층이 하층민을 억압하는 데 이용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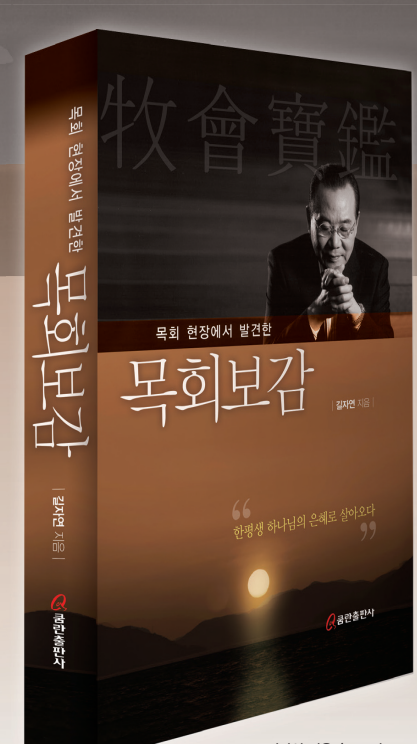
김유진 기자

목회 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

이 책은 부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처럼 김자연 목사의 은혜목회 회고록으로 목회현장에서 발견한 목회보감이다.

내용은 세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파트는 "나의 인생, 나의 고백"으로 가계 소개와 목회자로 소명 받은 과정이며, 제2 파트는 "나의 목회 사역"으로 영성목회와 교회부흥, 리더십, 설교 등이며, 제3 파트는 "한국교회를 향한 원로의 제안"으로 연합운동과 신학교육 현장의 사역을 통한 권면들이다.




김자연 저 / 408면
22,000원 / 신국판 양장

목회 현장에서의 발견한 목회보감

목회 현장에서의 발견한 목회보감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다



목사 김자연

현역 목회자 대상으로 한 (국민일보) 설문조사에서 가장 리더십이 좋은 목회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한평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과 기도를 전하며 영성 목회의 길을 걸어왔다. 깊은 영성은 명의(名醫) 칭호를 받으신 부친과 동대문 일대 거지들에게 국밥을 끓여 대접할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사셨던 모친에게서 물려받았다. 절풍노도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부친에 이어 한의대를 졸업해 개업 한의사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침통을 놓고 성경을 붙잡고 탁월한 영성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있다. 양성교회 원로목사이고, 현재는 양평에서 백합전원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산의 낙조처럼 살아가고 있다.

서울왕성교회, 과천왕성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숭한 직책을 걸어오면서 기독교북한선교회 이사장(1984),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사(1991), 총회신학대 재단이사(199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1998), 개신교연합부활주일 연합예배 대표회장(1999), 영성 목회연구회 총재(199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2대 학장(2000), 기독교북한선교회 총재(2002),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운영이사장(2002), 제10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03-2004), 칼빈대학교 총장(2007-2011), 제17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2010-2011), 제5대 총신대학교 총장(2013.12) 등을 역임했다.

1941년 4월 19일생으로 1964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한의학과를 졸업하였다. 2001년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량스런 대광인상 수상(2003), 지량스런은 목회자상 수상(2003), 서울기독교대학교 명예철학박사(2004), 미국 루이지애나 벨리스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2005)를 받았다. 저서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 두고 가는 사람》, 《문제 곁에 있는 해답》, 《고난 속에 숨은 축복》, 《김자연, 《하나님을 향한 사람 1,2》,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큐란출판사 • 한글인터네트주소 : 큐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curan.co.kr
• 서울 중구 이화정길 6 ☎ 02-747-1004(내)



니느웨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요나 4:1-11



서울성민교회 목사 장재효

1. 요나 선지자에 대한 고찰(考察)

요나는 아밋대의 아들로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시대(BC793-753)에 활동한 구약시대 선지자로서는 최초의 이방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惡毒)이 내 앞에 상달(上達)하였음이니라(요4:1-2)”고 지시 하셨으나 3절 이하 요나는 여호와와 낯을 피하여 욕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도망갔으나 여호와께서 폭풍을 크게 일으키사 배가 파선될때 사공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했으나 배가 더욱 위태롭게 됨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재앙(災殃)이 누구 때문인지를 가려 내기위해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잠언 16:33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했습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이 재앙이 무슨 연고(然故)로 우리에게 임했는지 네가 밝히라 했을때 9절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敬畏) 하는 자”라고 말하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와 낯을...(중략)...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고 원망(怨望)어린 책망(責望)을 했습니다. 뱃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고 물었을때 12절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해야 바다가 잔잔해 질것이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사형언도(死刑言渡)를 내리고 이 큰 폭풍(暴風)은 내 죄값의 결과라고 고백했습니다. 15절 이하에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는 곧 잔잔해졌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삼야(三日三夜)를 지내야 했습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왔고 죽을 힘을 다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육지에 토하게 하심으로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3장에는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요나를 큰 풍랑과 고기를 예비하여 회개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하여 선지자의 선교 사명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2. 니느웨의 죄악상(罪惡相)

니느웨는 앗수르의 가장 큰 도시로 창세기 10:11-12에 보면 영걸(英傑) 니므롯이 건설(建設)한 성읍들 중 하나이며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규모가

가장 큰 도시로서 둘레가 96Km나 되었고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었으며 앗수르 전성기(全盛期)엔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BC 760년경에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앗수르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었고 그 당시 앗수르왕은 앗수르단 3세(BC 771-754)로 그 당시 인구는 남녀노유(男女老幼) 약 60만 이었다고 합니다. 요나 1:2절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시면서 요나에게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죄악상도 예외(例外)가 아닌것 같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두렵기 그지 없습니다. 나훎 선지를 통한 예언에도 “화 있을찢저 피 성이여 그 속에서는 궤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확확 하는 채찍 소리...(중략)...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도 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무(荒蕪)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나3:1-7)” 하셨으나 로마서 2:5 절의 말씀처럼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중략)...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심과 같았던 것입니다.

3. 요나가 니느웨 구원을 원치 않았던 이유

오래도록 역사 속에서 여러차례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侵攻)했으며 사람들을 사로잡아갔고 재산을 약탈해간 앗수르의 대도시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려고 요나가 가서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심(內心)으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滅亡)하기를 소원(所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에 처하여 회개하고 여호와와 명령을 수행할 것을 서원했기에 다시 살아나와서 “요나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중략)...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3:3-4)” 했고 5절 이하에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왕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전적으로 애통(哀痛)하고 자복(自服)하기를 철저히(徹底)히 했기 때문에 죄악을 떠나 악한 길에서 돌이킨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災殃) 대신 긍휼의 은혜와 용서로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편견(偏見)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 성을 떠나 언덕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자고 하면서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仁愛)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줄을 알았다고는 하면서 4:3절에서는 “여호와여 원컨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라고 오도방정을 떨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너의 성년이 어찌 합당하냐”시며 6절에 “여호와께서 박 넉줄을 준비하사 요나위에 햇빛을 가리워지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는 박 넉줄 그늘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은 다시 벌레를 시켜 요나가 그토록 기뻐했던 박 넉줄을...(중략)...요나가 혼곤하다며 스스로 죽기를 청하였다”했습니다. 요나가 구약 선지자들중 처음으로 해외 선교 사역(宣敎使役)을 감당하면서도 편견에 고착(固着)되어 선교지주민(宣敎地住民)의 영혼을 사랑할줄 몰랐고 지나칠 정도로 자기육신(自己肉身)의 안일 무사주의(安逸無事主義)와 이기적(利己的) 처세(處世)로 일관(一貫)하는 모습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도 특히 선교사들이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넉줄로 인하여...(중략)...합당하니이다”라고 했을때 10-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도도 아니하였고 배양(培養)도...(중략)...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심으로 긍휼과 은혜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시며 걱정하시는 것이 심판으로 멸망시킬 근심보다 회개시켜 구원해 주시려는 목적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선교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거센 파도로 길을 막으셨고 제비뽑기로 걸리게 하시며 스스로의 죄를 공개자백하게 하

셨으며 스스로 사형언도를 내려 바다에 던져 달라 하게 되고 큰 고기를 예비하사 통째로 삼키게 하셔서 고기 뱃속에서 3일을 회개하게 하심으로 선교사명에 복종하게 만드셔서 기어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불의와 죄악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심판을 돌이켜 용서와 구원으로 바꾸셨는데 원수시 해온 니느웨의 구원을 너무나 못마땅해하는 자기의 종철부지(哲不知) 요나를 박 넉줄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들의 체험을 통하여 영혼(靈魂)의 가치와 선교사명(宣敎使命)의 중요성(重要性)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지옥 형벌을 면케 된 감격적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눈물로 감사드리며 주변에 지옥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을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과 같이 영혼을 가장 귀하게 알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투자하고 희생하면서 위험과 죽음까지도 불사(不辭)하고 복음(福音)의 제물(祭物)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도행전 20:24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하였고, 고린도전서 9:14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선교사명을 실천했을 때 니느웨도 살렸고 자신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독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CDTV 미주기독일보

미주기독일보(CDTV)에서는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고, 이 소명 교수님의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로 온라인 목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GO’를 통해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본 교회 속 관계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순환 목사의 스토리가 있는 설교



Zoom 목회 나도 할 수 있다



신문GO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강준민 칼럼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작은 기회는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는 드물게 찾아옵니다. 정말 좋은 기회란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곡점(變曲點)을 만들어 내는 기회입니다. 변곡점이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제가 경험한 기회는 좋은 만남을 통해 찾아옵니다. 만남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만남이 찾아왔을 때 정원을 가꾸듯 잘 가꾸어야 합니다. 또한 기회는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 찾아옵니다. 이것이 기회의 신비입니다. 고난 속에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고난 속에 기회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통찰력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은 고난이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선물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에 잘 반응하면 고난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선물로 여기고, 고난을 수용하십시오. 고난을 잘 견디십시오. 그때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선물해 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지혜를 선물해 줍니다.

아주 소중한 기회는 잘 준비된 사람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준비에 대한 지혜를 네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기도를 통해 준비하십시오. 정말 좋은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위로부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면서 목표를 세우십시오. 기도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기회를 분별하고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찾아 기도합니다(행 16:13, 16).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 예비해 둔 사람을 만나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게 됩니다(행 16:14-15). 그 만남이 선교와 교회 개척의 기회가 됩니다.

둘째, 학습을 통해 준비하십시오. 학습(學習)이란 배우고 익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學習)이란 한문은 “배울” 학(學)과 “익힐” 습(習)이란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학습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길은 다양합니다. 그중의 하나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 속에 우리가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책 속에 미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

다. 책은 우리의 지성을 자극해 줍니다. 감성을 풍부하게 해 줍니다. 영성에 깊이를 더해 줍니다. 책을 가까이하십시오. 책 중의 책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읽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읽고 묵상할 때 깨달음이 임합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저는 평생 학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셋째, 훈련을 통해 준비하십시오. 어느 분야든지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 훈련에 있습니다. 탁월한 운동선수, 탁월한 예술가, 탁월한 디자이너,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길은 훈련에 있습니다. 훈련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훈련이란 밝은 미래를 위해 고통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캇 펙은 “훈련이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훈련이란 즐거움을 지연시키는 능력이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의 비밀은 지속과 반복에 있습니다. 무조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반복이란 기술이 향상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태도

를 반복해서는 결코 탁월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창조적 반복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선물해 줍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저축을 통해 준비하십시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지적, 인적, 물질적, 그리고 영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은 저축을 통해 축적됩니다. 저축은 축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근검절약해야 합니다. 수입보다 적게 사용해야 합니다. 저축은 절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투자가 저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투기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건전한 투자는 좋아하십니다.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한 후에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 땅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매년 교회 재정의 5분의 1씩 저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 미래를 잘 준비함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연재 '굵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성교
박상원 목사

그도 그럴 것이 끼니조차 없는 북한에서 그냥 소도 아니고 흠이 없는 소를 잡아 번제를 드

리라는 레위기의 명령은 도무지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말씀이었다. 더구나 왜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은지, 북한 정부가 하는 짓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가는 빼도 못 추리는 비참한 처지에 놓일 것 같아 너무나 무서웠다. 당시에 나를 괴롭힌 말씀은 이랬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레 26:14-29).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자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당시 북한을 휩쓴 흉년으로 사람은 물론 짐승들도 먹지 못해 픽픽 쓰러지는 판국에 어디서 흠 없는 짐승

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양은 북한 땅을 살살이 뒤져도 찾기 힘들었다.

당시 우리 작업반에는 짐승이라야 통틀어 암소 한 마리와 황소 한 마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말라비틀어진 송아지 두 마리가 전부였다. 황소는 우리 작업반에서는 대들보 같은 존재였다. 사실 우리가 지은 농사는 군대가 군량미로 빼앗아가서 정작 농장 식구들에게는 썩은 감자밖에 돌아갈 게 없었다. 더구나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폐병으로, 홍역과 콜레라로 이생을 마감하고 있었다. 우리 작업

반만 해도 1996년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총 74명에서 32명밖에 되지 않았다. 절반이 넘는 42명이 병으로 죽고 굶어서 죽은 것이다.

당시 북한의 상황은 내가 두려워 떨던 레위기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상태였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레 26:16). (계속)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le Ave. 뉴 세울 호텔 건너편)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
남녀맞춤/명품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2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원격 수업도 지원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야곱가정 문제해결을 통해 배우는 두 가지 교훈

야곱 가정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 간 끊어지지 않는 갈등과 미움과 다툼 등 문제들이 안타깝게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며 새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된 핵심요소, 첫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기근이 심하여 애굽에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야만 하는데, 이미 첫 번째 방문 시 정탐들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시므온은 아직 인질로 애굽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죽음으로 낳은 막내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데려가야만 하기에 아들들과의 설전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 때 유다가 책임감으로 아버지 야

곱을 설득합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걱정하는 것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생명을 두고 베냐민을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유다는 4번째 아들이지만, 가나안 땅 정복에서도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되고, 이런 책임지는 태도로 인해 결국 예수님의 지파가 되는 영적 장자가 되었습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책임감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장교들은 '돌격 앞으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만 한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책임감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라고 했습니다. 안 되면 나가면 그만이고, 어려우면 피하거나 때려치우면 된다는 태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서는 지옥 아랫쪽에 내려간 사람은 '배신자'와 '책임에서 도피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 진짜가 되려면, 반드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요소, 두 번째는 '내려놓음'입니다. 야곱은 내키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살기 위해 애착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야밤에 혼자 도망칠 때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을 때에도, 예서의 복수 앞에서 모든 식구들과 재산을 앞서 보내고 압박강의 나루터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체험할 때는 언제나 '내려놓음'이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어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내려놓으니까 아들 이삭을 향해 순종의 칼을 들 수 있었고, 여호와 이레라는 영광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생애처럼 중요한 재산인 우물을 빼앗길 때 '내려놓음'으로 주고, 또 주다가 르호봇 넓은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 아니 하실찌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내려놓음'을 실천하니까 역전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책임감'과 '내려놓음'으로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리더십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서서히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현장예배가 문을 닫고, 온라인 외에는 예배드릴 다른 방법이 없었을 때도, 베델의 예배는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조금씩 늘어가는 가운데, 지난주에 열렸던 추수감사절 축제에는 코로나 이후 최대 인원인 1000여명(BGC 포함)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마치 코로나와의 전쟁 승리를 선포하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코로나 숲을 뚫고 나왔고, 코로

나 이후 다시 기쁨으로 리셋하며 달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이번 추수감사절 축제는, 베델의 모두가 하나되어 달려왔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한마당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물을 풍성히 나누도록 너그럽게 도네이션 해주신 성도님들의 교회 사랑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무대 퍼포먼스와 더불어 축제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양종맞은 한복을 입고 춤을 추며, 남자 집사님들의 발레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를 포복절도하며 눈물 날 정도로 웃게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망가지기를 마다하지 않고, 느끼함 연기에서부터 연지



김 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근지 찍고, '송구리당탕 송당당'까지 성도들과 한데 어우러졌습

니다. 성도님들도 두 달 동안 함께 모여 연습하면서 서로 얼마나 친해졌는지, 팬데믹 이후 갈급했던 친교의 유익과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이렇듯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리더십을 배웁니다. 리더십은 섬김입니다. 섬김이 없었다면 축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맛있는 식사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리더십은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희생하는 본을 보이지 못하면 성도들은 결코 능동적일 수 없고,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리더십은 솔선수범입니다. 축

제를 준비할 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의리입니다. 리더십은 기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벽을 허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친근해지고, 그러면 같이 웃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리더들이 많으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기간을 함께 견뎌오며 목회자들을 응원하고, 성도들을 섬겨주신 겸손한 리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런 리더들을 교회적으로 세우는 날이 다가옵니다. 군림하는 리더가 아닌 섬기는 리더를 세우는 또 한 번의 축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ge	\$300,000		\$500,000		\$1,000,000		Age	\$100,000		\$300,000		\$500,000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율연자 Rate 올 보험료/사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학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드림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실 분을 찾습니다.

- 분야**
 - 찬양팀 건반 반주자
 - 중고등부 전도사
- 파트타임**
- 연락처**
626-793-0880
dreamchurchresume@gmail.com

오렌지 카운티 지역

방 있습니다

월 600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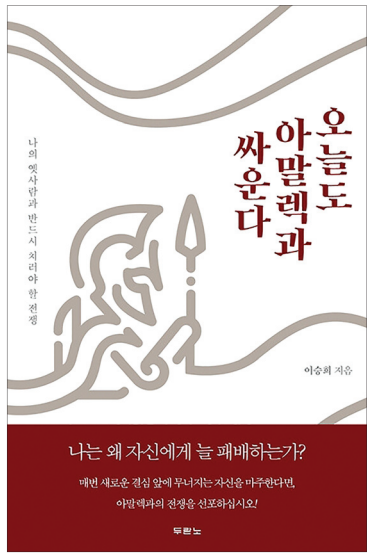
애나하임 가정집 2층 베드룸 렌트
젊은 남자분 직장인이나 학생 환영

714-337-6888

전화 혹은 텍스트 문자 주세요.

이승희 목사 저서 <오늘도 아말렉과 싸운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 지우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길”



아말렉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던 족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라고 상반된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아말렉과 같은 악의 존재가 항상 공격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명령이자, 절대 악의 존재가 우리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위 버리라는 의미이다.

저자 이승희 목사(대구 반야월교회)는 오늘날 아말렉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고 관찰하며 이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책에 담아냈다. 본 도서는 △아말렉, 내 안에 있다 △아말렉, 틈새를 공격한다 △아말렉, 기억에서 지워라 △당신, 누구와 싸우는가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 있다는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아말렉, 기억에서 지워라’가 눈길을 이끈다.

이 목사는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이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골짜기를 구석구석 다니다가 흩어진 뼈들을 봤다. 에스겔 선지자는 뼈들을 보며 그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에스겔이 본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 휘둘러 좌절과 절망 속에 살게 되었다. 이처럼 마른 뼈가 즐비한 골짜기는 절망과 고통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큰 상처를 입힌 장소였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아말렉이라는 이름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이

며, 조금 의역하면 ‘약탈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들어와 약한 부분을 뒤흔들며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려고 할 때 빈틈을 노리고 공격하며, 꿈을 약탈하고, 희망을 거둬간다. 이처럼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주 못된 세력이자 악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 아말렉을 지우라는 명령은 ‘과거와의 작별’을 선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말렉과 관계 맺었던 모든 것들과 단절하고 작별하라는 의미이다. 어떤 사고로 깊은 상처가 나면 그것이 아물어도 몸에 흔적으로 남게 된다. 흔적으로 남은 상처를 보면 그때가 떠오르게 된다. 이처럼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새겨진 상처와 같았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상처를 다시 받지 않도록 아말렉을 지우라고 명령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새로운 일을 시행하실 때 그 전에 반드시 거치는 작업이 있다. 그것은 지난날과 작별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전에 경험한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새 일을 경험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셔서 새 일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어 그들을 위해 강물

을 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것이 복의 근원 이신 하나님의 공식이며, 택한 백성에게 상상하지 못할 새 일을 행하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했다.

이 목사는 이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난날의 상처로 내면에 쓴 물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상처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그냥 덮어 놓게 된다. 그러나 상처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식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며 갈 때, 지난날의 잘못과 수치를 생각하게 하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야만 하나님의 일 하심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아말렉을 지울 능력이 없지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요. 그분으로 인해 믿음으로 아말렉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우고 작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다”라고 했다.

이어 “아말렉이 우리 인생을 공격하면 평지와 같던 인생이 끝을 알 수 없는 골짜기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에 집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다. 꿈의 사람 요셉을 보면 그는 과거에 버려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나아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시고 여전히 함께하심을 믿었기에 주어진 현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를 넘어뜨렸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라는 시

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한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며,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마지막으로, 아말렉을 기억 속에서 지우려는 것은 미래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받으라는 의미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에게 아말렉적 기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신앙의 유산을 대물림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생활할 때 특히 자녀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언행을 삼가시길 바란다. 아말렉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교회라고 착각하는 순간, 감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바뀐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맺는다. 부모에게 좋은 영향도 받지만 좋지 않은 영향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에게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의 기질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한다”라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려라!’ 이 한 마디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들어 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싸우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흐드는 아말렉의 기억 속에서 승리하길 바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 누리는 풍성함을 맛 볼 수 있길 축복한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조용기 목사의 소망과 위로

사단법인 영산글로벌미션포럼이 엮은 <조용기 목사의 소망과 위로>가 교회성장연구소를 통해 출간됐다.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들려주는故 조용기 목사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다. 본 도서에서 영산 조용기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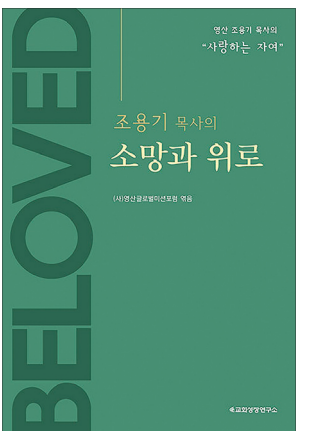
가 63년 동안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한 설교 중 가장 처음으로 엮은 주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인 ‘소망과 위로’다. 조용기 목사는 생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며,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나 희망과 사랑의 복음을 강력하게 외쳤다.

조 목사가 생전에 했던 설교 중 그는 “성경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13)”라고 말씀하셨다. 십자가 밑에 나가면 소망을 얻는다. 용서의 소망, 성결의 소망, 치료의 소망, 축복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얻는다. 소망을 마음속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십자가 밑에 나가야 소망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출판사에 따르면 “조용기 목사는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면한다. 그의 음성과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따뜻하게 위로한다. 그를 기억하며 엮어낸 10편의 설교는 각종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평안을 전해줄 것이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넷플릭스 영화 <지옥> (1)

넷플릭스 1위 드라마 <지옥>, 기독교 원죄 교리 회의감 담아

내세보다 현세, 초자연보다 사회적 현실에 초점 맞춰 죄 없는 미혼모와 갓난아기까지 지옥 예고 감독 의도 기독교 원죄 교리의 무차별성에 절대적 회의 드러내 드라마, 기독교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피로감 조성해

◆원죄와 지옥: 원죄에 대한 믿음을 회의하는 서사

지난 19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이 발표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행>(2016)으로 흥행감독 반열에 올랐던 연상호 감독의 작품이다.

원래 연상호 감독은 독립영화, 예술영화 부문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던 인물인데, 2016년 대대적인 흥행(천만 관객 달성)에 성공했던 <부산행> 이후 상업영화 영역에서도 입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2018년의 <연력>, 2020년의 <반도>가 평가와 흥행 양쪽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내놓으며, '원히트 원다' 감독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던 중, 연상호 감독은 이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을 통해 다시금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지옥>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내세보다는 현세, 초자연의 영역보다는 사회적 현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옥>에 등장하는 초자연 영역, 즉 죽음을 예고하는 홀로그램형 괴물이나 그 죽음을 집행하는 고릴라 형태의 세 괴물은 사실상 그에 반응하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이끌어내기 위한 발판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지옥>의 서사에서 초자연 영역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이 괴물들을 묘사함에 있어 코믹함과 혐오스러움이 뒤섞인 그런 어설픈 CG처리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이 괴물들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지목해 "어느 날 몇시에 지옥에 간다"는 예고를 하고, 정한 시간이 되면 예고된 자에게 홀연히 나타나 무자비한 린치를 가한 뒤 그 자리에서 태워 죽인다.

문제는 이렇게 죽는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기괴한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불

분명하다는 것이다.

1화 후반부까지 '예고살인'을 당하는 이유는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것처럼 소개된다. 괴물들에 의해 자행되는 불가해한 예고살인을 신의 뜻이라 믿는 신흥종교단체 '새진리회'의 창시자이자 의장 정진수(유아인 분)는 전 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죽은 이들 모두가 살인자, 폭력범, 사기꾼, 강간범이라고 밝히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 형벌을 피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널리 확산시킨다.

그러나 이 신흥단체의 가르침은 별다른 범법 혐의가 없는 미혼모 박정자(김신옥)의 지옥 예고에 이르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게다가 이 미혼모의 죽음 이후 갓 태어난 아기까지 지옥 예고를 받으면서, 이 기괴한 죽음의 예고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과는 별 상관없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갓난아기가 지옥에 간다고 선고를 받는 이 장면에서 연상호 감독의 의도는 분명해진다. 그는 기독교 원죄 교리의 무차별성에 대해 절대적인 회의감을 드러내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갓난아이를 두고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가르칠 만한 종교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독교일 것이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한 사람(아담)'의 죄를 물려 받았다고 가르치며(롬 5:12), 이 '죄의 삯은 죽음'임을 명시하고 있다(롬 6:23).

그러나 특정한 아기를 두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가르칠 만한 종교가 사실 기독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힌두교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전생애 죄업이 많았던 아기는 일찍 죽을 수도 있다.

이슬람의 경우 그들 입장에서 불신자 집안의 아기는 죽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

<지옥>에서 아기에게 내려지는 지옥 예고는 정확히 기독교의 가르침을 회의의 표적으로 삼기 위한 장치로 확인된다.

◆원죄와 종교: 원죄에 대한 믿음과 광기의 결합

이러한 의도는 <지옥>에 등장하는 신흥종교 '새진리회'의 모습을 통해 분명해진다. 일단 단체 이름부터 기독교 계열 이단 교파들을 연상시키는 데다, 그 운영 방식 역시 이단 교파들의 방식을 그대로 본딴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이 단체 창시자이자 초대 의장인 정진수가 예고된 대로 괴물들에게 죽임을 당한 후 차기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는 이가 김정철 목사(이동희 분)인데, 원래 점조직 스타디움 형태로 운영되었던 단체를 본격적으로 사이버 단체로 탈바꿈해 놓는 인물이다.

이로써 드라마 <지옥>의 서사 전반은 왜곡된 방식으로 기독교 원죄 교리를 믿는 이들에 의해 벌어지는 범죄, 사기, 폭력, 그리고 살인을 다루고 있다.

감독의 연출은 사람들을 죽이는 초현실적 괴물의 정체나 배후 등에 대한 관심보다는, 불가해한 상황에 직면한 대중의 광기를 양분삼아 커져가는 종교단체의 기행과 사기 행각에 대한 관심이 커지도록 기획되어 있다.

사실 연상호 감독은 이미 독립영화, 예술영화 감독 시기부터 이단, 사이버 교파에 대한 통렬

한 비판의식 혹은 종교단체 전반에 대한 회의감과 반감을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고 표현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아왔다.

특히 2013년 감독을 맡았던 장편 애니메이션 <사이비>는 비윤리적이고 자질이 없는 목회자가 사기행각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사이비 교주로 타락할 수 있는지 암울하면서도 세밀하게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 작품은 훗날 2019년 드라마 <구해줘 2>로 리메이크되었다.

<사이비>와 <구해줘 2>의 서사를 보면 확인되듯, 기독교 계열 이단 교파의 창설, 포교, 성장 과정에 대한 연상호 감독의 이해는 남다른 편이다.

다만 그는 이단 교파 못지 않게 기독교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시각을 사회에 대한 감독 자신의 염세적 감정을 담아 화면에 펼쳐낸다.

<지옥>에도 이런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괴물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보다, 그것에 반응하는 인간들의 비이성적 태도와 광기가 더 끔찍하고 암울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감독은 각종 사이비 신흥종교들의 허망함과 부패함을 고발하는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가치도 회의하게 만든다. 원죄 교리가 허망하고 근거없다는 주장은 곧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갈망 역시 헛되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세계적 흥행에 성공한 <오징어 게임>에 이어 넷플릭스의 후발 기대작인 <지옥>까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 두 편의 작품 가운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와 조롱의 정서가 공유되고 있다.

이처럼 주요 대중문화 콘텐츠가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가치에 대한 거부와 비판을 지속하게 되면, 시청자들은 식상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 식상함은 기독교에 대한 편향적 비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와 관련된 요소라면 쳐다보기도 싫다는 피로감을 시청자들의 마음 속에 심어줄 것이다.

만일 연상호 감독의 의도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애초 기독교 신앙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관심조차 두기 싫게 만드는 것이라면, <지옥>은 이런 의도를 충실히 떠받드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 속 지옥 예고와 그 집행의 우스꽝스러움과 허술함, 그리고 신흥 종교단체가 벌이는 각종 사기극과 그에 관련된 폭력, 범죄, 살인과 같은 요소들은 기독교적 인간 이해, 특히 죄성을 품고 태어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절박한 자각과 구원을 향한 진지한 갈망을 허망하고 우스운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 학원 겸임교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회의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문화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시내산이 사우디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우디 시내산 순례길 참가자 모집

2022년 상반기 일정

- 2월 순례길 : 2022년 2/21 ~ 3/5 (마감)
- 3월 순례길 : 2022년 3/21 ~ 4/2
- 4월 순례길 : 2022년 4/11 ~ 4/23

2022년 하반기 일정

10월, 11월, 12월 예정

* 각 일정별 정원은 30명입니다. 일찍 신청하지 않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왜 사우디의 시내산인가?

기독교 출애굽의 경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기존의 이집트 시내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NEOM Project의 일환으로 문호를 활짝 열고 방문객들을 받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시내산을 주장하는 학자들/선각자들



Robert Cornuke

"The Mountain of God" (사우디 시내산) 저자

"이 책은 실제 시내산 발견에 대한 종래의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탐구물입니다."



이재환 선교사

Come Mission 장로

"가보면 보게 되고 알게되고 영성이 살아납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실재를 얻게 됩니다."



김승약 장로

성경이후 최고의 기독교 서적 베스트 셀러, "말기나루 1&2" 저자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6년동안 12차례 북부 아라비아 탐사, 말기나루 1편, 2편을 저술, 400회가 넘는 강연 활동중.



Penny & Jim Caldwell

"The God of the Mountain" 저자, 최초 르비딴 반석 & 여오와 낫시 재단 발견자

"우리는 Jabal al-Maqla 가 성경에서 나오는 실제 시내산 (Mount Sinai) 이라고 믿으며, Jabal al-Lawz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오렐 (Mount Horeb) 이라고 믿는다."



Dr. Glen A. Fritz

대작 "The Lost Sea of the Exodus", "The Exodus Mysteries of Midian, Sinai & Jabal al-Lawz" 의 저자

"이브리 성경에 나오는 홍해바다 (Yam Suph) 는 아카바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랍트 앞바다 수에즈 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디안땅은 팔레스타인 지역 남쪽, 아라비아 펠릭스네 아카바만의 동쪽, 즉 사우디 아라비아 땅을 의미합니다. 오렐산은 사우디 아라비아 북쪽의 Jabal al-Lawz 산을 의미하며 시내산은 그중 가장 높은 Jabal al-Maqla 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상세일정

* 각 지역별로 저녁 시간에는 출애굽 여정을 다루는 특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2월, 3월에는 김승약 장로의 세미나가 제공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3박 4일)

일자	방문지
제 1일	팜 오아시스, 모세의 오아시스 (Magna), Tayeb ISM 계곡
제 2일	슈와브 동굴, 모세의 우물, 르비딴 반석
제 3일	시내산 개울가, 금송아지 암각화, 12개의 돌제단, 고대 무덤터
제 4일	시내산 엘리아의 동굴 등반, 요르단 국경으로 이동

요르단 (4박 5일)

일자	방문지
제 1일	요르단 도착
제 2일	주일예배, 와디럼 지프 투어
제 3일	페트라(시크, 엘카즈네 신전, 호르산 조망, 로마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바테안 유적 등)
제 4일	느보산, 마다바(모자이크 성서지도), 헤스본성 순례 후 마인 운전
제 5일	압복강 조망, 제라쉬 로마유적지 관광, 공방이동

두바이 (3박 4일)

일자	방문지
제 1일	두바이 도착
제 2일	두바이 물, View at the Palm, 썬메디닛 주메이라, 두바이 박물관(성경사본) 관람
제 3일	바스타키야(민속촌), 향신료 시장, 두바이 마리나 Private 요트관광, 전통 시장, 워터쇼 관람
제 4일	두바이 출국

백신 접종률 (10/30/2021 기준)

United Arab Emirates - 86.9%(Full) + 9.9%(Partial)

Saudi Arabia - 61.0%(Full) + 7.5%(Partial)

NEOM 프로젝트

NEOM은 New Future 라는 뜻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석유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사우디 생존을 위하여 시작한 어마어마한 도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의 400배 크기의 땅에 2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탄소가스 제로, 길거리 제로, 타 지역보다 섭씨 10도 이하로 낮게 하는 100% 자연 친화적인 Cognitive City 를 건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내산 개방은 이 거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함입니다.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외출을 허용함에 이어 눈만 내놓았던 하접사용도 이미 자율화 하였습니다. (<https://neom.com/en-us>)



엘림



엘리아의 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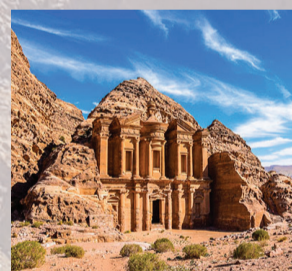
금송아지 암각화



르비딴 반석



시내산 앞 12개의 돌기둥



페트라



와디럼



예수님 세례터



Burj Khalifa



주메이라 팜 아일랜드

세마포 호도스 (Semapo Hodos)

세마포 호도스는 사우디 시내산을 진짜 시내산으로 굳게 믿고 40년간의 하나님 출애굽 역사의 현장을 생생하게 방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세마포는 예수님의 수의이자 재림시 입으실 옷, 또 '성도의 바른 행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세상과 마주하며 통찰하기 위한 '세상을 마주하는 포럼' 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Hodos 는 '길'이라는 뜻의 히랍어입니다.



Instagram : @semapohodos
Email : info@semapohodos.com

<https://VisitMountSinaiArabia.com>

213-262-9411